

## 이소노카미 신궁의 진혼제

수천 년 동안 이소노카미 신궁은 재생, 부활, 소생의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중심에는 수명을 늘리고 망자도 되살린다고 여겨졌던 ‘혼을 뒤흔드는’ 또는 ‘혼을 진정시키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진콘사이(진혼제)’, ‘미타마시즈메’, ‘후루노코토’, ‘다마후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매년 11월 22일과 입춘 이틀 전에 치러집니다. 이 제사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됩니다.

‘진콘사이(진혼제)’는 모노노베 가문의 시조로 여겨지는 우마시마지노미코토가 가르침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니기하야히노미코토로, 인간계에 강림했을 때 천신들로부터 10 개의 신성한 유물을 받았습니다. 신들은 그에게 10 개의 신성한 유물로 망자를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니기하야히의 아들이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을 위해 진혼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 진혼제와 10 개의 신성한 유물은 황실 가족의 건강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방법으로 모노노베 가문에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다마후리(진혼)’라는 말은 인간의 혼과 신의 세계를 묶는 끈인 ‘다마노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마노오는 인간 생명력의 근원을 나타내며 이를 ‘흔드는’ 것은 혼을 자극하여 건강을 증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진혼제는 국가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태양이 가장 약하고 대지가 황량해지는 겨울에 지냅니다.